

# 목표는 10위 日 텃세와 싸운다

**도쿄올림픽 (7월 24~8월 9일) <상>**

한국, 금메달 10개 목표  
양궁·태권도·사격·펜싱 등  
日和 강세종목 겹쳐 변수  
야구, 12년만에 복귀

올림픽의 해가 밝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32번째 하계올림픽인 2020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치러진다. 도쿄는 1964년 제18회 올림픽 이래 56년 만에 다시 하계올림픽을 개최한다. 일본은 아시아에선 최초로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1972년 삿포로·1998년 나가노)을 두 번씩 개최한 나라가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끝으로 사라진 야구·소프트볼이 12년 만에 올림픽에 복귀하고, 가라데·스케이트보드·서핑·스포츠클라이밍 4개 종목이 추가돼 도쿄올림픽에선 33개 종목이 열린다. 세부 경기의 금메달 수는 모두 339개다. 메달 종목은 남자 165개, 여자 156개, 혼성 18개로 이뤄진다.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에서 '10·10' (금메달 10개 이상을 따 종합 순위 10위 이내 입상)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4년 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서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8위에 올랐다. 한국의 도쿄올림픽 금메달 목표 수치는 리우 때보다 1개 많고, 아시아권에서 열린 2008년 베이징올림픽(금메달 13개·은메달 10개·동메달 8개로 전체 7위)보다 적다. 우리나라와 동시간대에 열리는 터라 태극전사들은 다른 올림픽과 비교해 시차와 현지 적응 문제를 겪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텃세가 가장 걱정거리다. 일본은 중주국을 자부하는 유도과 가라데의 메달 싹쓸이를 앞세워 금메달 30개를 획득해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종합 순위 1위에 오르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와 메달 획득 종목이 많이 겹치는 상황에서 일본이 개최국 이점을 누리다면 한국의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우리의 전략 종목에서 세계적인 전력 평준화가 이뤄져 금메달을 확실하게 장담할 만한 종목이 줄은 점도 약재다. 다만 체육회는 양궁, 태권도, 사격, 펜싱 등 효자 종목은 물론 근대 5종, 배드민턴, 역도, 체조, 골프, 야구 등이 선전하면 종합 10위 입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적지에서 열리는 각 종목 한일전을 앞두고 태극전사들이 버는 투지도 체육회가 기대하는 대목이다. 체육회에 따르면, 현재 태극전사들의 도쿄 올림픽 출전권 확보 현황은 4년 전 이맘때의 90% 수준이라고 한다. 남녀 하기가 동반 탈락해 적지 않은 충격을 줬지만, 남녀 배구, 남녀 농구, 남자 핸드



볼, 남녀 축구 등 구기 종목이 2020년 벅두부터 마지막 도쿄행 티켓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단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구기 종목이 선전해 더 많은 선수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수중에 넣으면 입원을 합친 한국 선수단의 전체 규모는 리우올림픽 수준(333명)을 유지하거나 조금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2020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을 노리는 국가대표 김우진(맨 위), 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골프 고진영(가운데), 올림픽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게될 손흥민.

# 손·류·고 활약 올해도 GO~

<흥민> <현진> <진영>

손흥민, 한시즌 최다골 달성  
류현진 '토론토 괴물' 변신  
고진영, 올림픽 금메달 기대

해의 무대에서 멋진 모습으로 국내 팬을 즐겁게 하는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은 2020년에도 이어진다. 유럽 프로축구에서 연일 한국·아시아 선수 최초·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손흥민(27·토트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팀을 옮겨 도전에 나서서 류현진(32·토론토 입단 예정)이 변함없이 선봉에 선다.



류현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강세가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기대된다. ◇ 손흥민, 개인 한 시즌 최다골 '정조준' 2019년 내내 물오른 기량을 뽐내며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랐으나 퇴장과 징계로 한해를 다소 아쉽게 마무리한 손흥민은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을 맞이한다. 복귀전으로 예상되는 1월 5일 미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3라운드를 시작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쉴 새 없이 치러야 한다. 조제 모리뉴 감독 체제에서도 변함없는 신임을 얻으며 중용되는 만큼 남은 2019-2020 시즌 동안 손흥민이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손흥민의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은 토트넘 2년 차인 2016-2017시즌에 남긴 21골(프리미어리그 14골)이다. 지난 2018-2019시즌에는 그에 버금가는 20골(프리미어리그 12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엔 프리미어리그 5골, UEFA 챔피언스리그 5골 등 10골을 넣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많이 남은 데다 한 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무섭게 몰아치는 데 능한 만큼 부상 없이 흐름을 이어간다면 기록 경신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캡틴'이기도 한 그는 벤투호와 함께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여정도 이어가야 한다. 3월 튀르키예니스탄(홈), 스리랑카(원정), 6월 북한(홈), 레바논(홈)과의 2차 예선이 펼쳐지고, 9월부터는 월드컵 본선행이 결정될 3차 예선이 펼쳐진다. ◇ 류현진 '토론토의 괴물' 될까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등지를 튼 류현진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019시즌 내셔널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14승 5패 평균자책점 2.32를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류현진은 최근 자유계약선수(FA) 신분으로 토론토와 4년 8천만달러의 대형 계약에 합의했다. 토론토는 류현진에게 도전의 땅이 될 전망

이다. 토론토가 속해있는 아메리칸리그는 지방 타자제도가 있어 선발투수가 타석에 들어설지 않는다. 류현진에겐 투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상대 팀 투수가 타석에 들어설지 않아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사라졌다. 토론토의 팀 전력은 다저스 보다 떨어지는 것도 부담스럽다. 월드시리즈 우승 후보였던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타선과 계투진의 도움을 받았던 류현진은 새 시즌 비교적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해야 한다. 토론토가 속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엔 전통의 명문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가 물려있는 격전지이기도 하다. 관건은 몸 상태다. 건강한 류현진은 국내 야구팬을 실망하게 한 적이 없었다. ◇ 고진영 필드 LPGA 한국 군단 '올림픽도 접수한다' 2019년 역대 한 시즌 최다 타이 기록인 15승을 합작한 LPGA의 '한국 군단'은 2020년에도 견재하다. 올해의 선수,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상금, 평균 타수 등 주요 부문 1위를 모두 휩쓸며 여자골프 1인자로 우뚝 선 고진영은 더 나은 새해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세계랭킹 2위인 박성현(26)과 2019년 신인왕 이정은(23) 등 대항마들도 만만치 않다. 특히 LPGA 투어 데뷔 첫해 메이저대회인 US여자오픈을 제패하고 신인왕을 거머쥐며 완전히 안착한 이정은의 기세가 주목된다. 고진영, 이정은 등 세계랭킹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공통으로 꼽는 '2020년 목표'는 도쿄 올림픽이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15위 내 한국 선수 중 상위 4명이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데, 현재까지 이정은, 박성현, 김세영(26·6위), 이정은(7위)이 해당한다. 세계랭킹 14위인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인비(31) 등 다른 선수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연합뉴스

